쇠락의 기로서 다시 활력 찾은 광주 동구

구도심 재개발로 인구 유입
인구 10만 재진입 눈앞
4국 체제로 조직 확대
공무원 정원도 30여명 늘어

지난 2015년 구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 10만명 선이 붕괴되면서 쇠락의 기로에 섰던 광주시 동구가 민선 7기 들어 인구 10만명 재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동구는 인구가 10만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부구청장 직급이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3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되고, 조직이 축소되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다.

내년 초 인구 10만명 돌파가 확실한 동구는 1개국을 신설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행정 곳곳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

17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이날 열린 동구의회 제27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주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기존 동구는 3국(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자치행정국), 2실(기획예산실·홍보실), 2담당관(인문도시정책관·법무감사관), 1단(문화도시재생추진단)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인문 도시 구현과 미래교육 강화 등 역점시책을 추진하고자 인문환경국을 신설하는 등 4국, 2실, 1담당관, 1단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문환경국에는 인문도시정책과, 푸른도시과, 미래교육과(신설), 환경청소과가 포함된다. 이중 미래교육과는 청년체육과·여성아동과의 업무를 전담하는 신설부서로서, 평생교육·도서관 업무·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세무과도 1·2과로 나누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배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도 674명에서 30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동구는 내년 1월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며 한때 9만4475명까지 떨어졌던 동구는 민선 7기 들어 인구 회복세에 따른 10만명 돌파를 앞둔 게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이다.

동구는 지난 10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1국 추가 승인을 받아냈으며, 이에 인문환경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동구의회에 상정해 통과했다.

행안부는 동구의 인구수가 2015년 이후 10만명 이하로 감소했지만, 민선 7기 들어 각종 행정적 노력으로 다시 10만명대 진입을 앞둔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추세에 구도심인 동구처럼 자치구의 행정기구 확대 승인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04년 기준 11만 8432명이었던 동구 인구는 같은 해 광주시청과 2005년 전남도청 이전, 구도심 공동화 등이 겹치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세를 보였다. 2015년 처음으로 인구 10만명 밑으로 추락했으며, 2016명 9만5791명, 2017년 9만5448명에 이어 지난해엔 9만4475명까지 떨어졌다.

민선 7기 들어 주민이 살기 좋은 주민 중심의 각종 행정 시책을 펼친 효과로, 올 들어 지난달 기준 9만 8628명까지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동구는 각종 재개발·재건축 유치 등이 속도를 내면서 내년 상반기면 무난히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 10만명 재진입에 따라 지난 2017년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급에서 4급으로 내려간 부청장 직급도 다시 3급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인구 증가를 통해 낙후하고 침체한 구도심 동구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겠다"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구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캠퍼스 적시는 겨울비 겨울비가 내린 17일 전남대학교 교정에 우산을 쓴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예고 오락가락 내신 산출 학부모 반발

"뒤늦은 분리산출 입시에 불리"

예술특성화고인 광주예술고등학교의 오락 가락하는 내신성적 산출방식을 놓고 일부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예고 학부모 등에 따르면 광주예고는 내년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주요 전공별 내신 성적을 분리해 산출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예고는 교육부 시정명령에 따라 2017년 2학기부터 국악·음악·한국화·미술·무용 등 5개 학과 학생의 성적을 하나로 합쳐 내신을 매겨왔다.

예고의 특성상 실기 비중이 큰 무용과 국악과 등을 다른 과와 하나로 묶어 내신을 산출할 경우 대학입시에서 내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지난 1월 교육부가 '교장 재량으로 분리산출이 가능하다'는 훈령을 내리면서 내신산출 방식을 바꾸게 됐다.

학부모들은 내신산출 방식을 분리산출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바꾼 시점 등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예고가 지난 1월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뒤 지난 3월부터 곧장 분리산출을 적용한 것과 달리 광주예고는 통합산출을 고수하는 바람에 타지역 예고 학생에 비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29개 예고 중 22곳(75.8%)은 분리산출 방식을 적용 중이다.

광주예고 한 학부모는 "교육부가 정책을 자주 바꿔 혼선을 준 것도 문제지만 훈령이 내려왔어도 통합산출을 고집해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교육청은 당장 이를 시정하고 현재 1학년에게도 분리산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예고 측은 분리산출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부 훈령이 내려오기 전 신입생 모집 요강이 공지됐고, 현 1학년에게 소급 적용을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광주예고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광주 북부소방서 불법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 운영

광주북부소방은 겨울철을 맞아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부소방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와 소방시설을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방화시설은 물론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대형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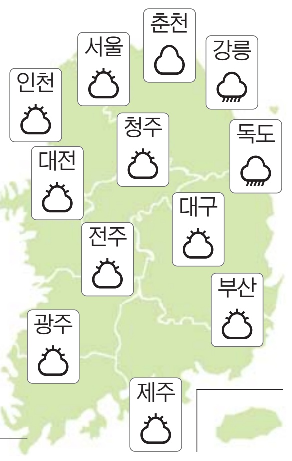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7:35	달뜸	23:46
해짐	17:23	달짐	12:19

빙판길 주의

구름 많고 바람 강하게 불어 춥겠다.

광 주	구름많음	2/8	보 성	구름많음	1/7
목 포	구름많음	4/6	순 천	구름많음	4/10
여 수	구름많음	5/10	영 광	구름많음	2/5
나 주	구름많음	1/7	진 도	구름많음	4/7
완 도	구름많음	5/8	전 주	구름많음	2/6
구 례	구름많음	0/8	군 산	구름많음	1/6
강 진	구름많음	4/8	남 원	구름많음	0/7
해 남	구름많음	2/7	흑산도	구름많음	5/7
장 성	구름많음	1/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1.0~3.0	북서~북	1.0~2.5
	먼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3.0
	먼바다(동)	북서~북	2.0~4.0	북서~북	2.0~3.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먼바다(서)	북서~북	2.0~3.0	북서~북	2.0~3.0
	먼바다(동)	북서~북	1.0~2.5	북서~북	1.0~2.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26	06:15
	--:--	19:00
여수	07:03	00:58
	19:56	13:42

◇생활지수

감기	높음
뇌졸증	높음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1/7	-1/7	-1/8	1/10	0/11	0/12	4/12

비 온 후 기온 뚝…21일까지 영하권 날씨

광주·전남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전날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내린 비로 인해 18일부터 쌀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위는 18일 아침부터 기온이 전날에 비해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주말인 21일까지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위가 절정에 이르는 19일 광주·전남의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하 4도를 기록하는 등 이번 주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끼겠다"면서 "바람도 강하고 체감온도도 낮아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8일과 19일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광주·전남 미세먼지 예보를 '보통' 단계로 예보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발뒤꿈치 통증' 족저근막염, 50대 여성 가장 많아

50대 여성이 '족저근막염'으로 가장 많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간 족저근막염 환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족저근막염 진료 인원은 2014년 17만 9000명에서 2018년 25만 8000명으로 44%(연평균 9.6%) 증가했다.

2018년 족저근막염 진료환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 14만8125명(57.4%), 남성 10만9804명(42.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많았다.

2018년 연령대별 전체 진료 현황을 보면, 50대 환자가 6만7317명(2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5만4904명, 60대 4만859명, 30대 4만54명 등의 순이었다. 여성은 50대가 4만5709명(30.9%), 남성은 40대 2만 3718명(21.6%)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